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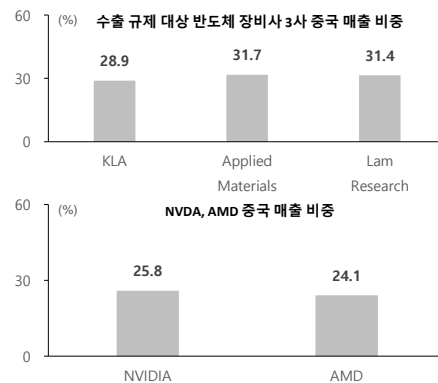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장기화될 전망

1. 안보 목적을 명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장기화될 전망

- 미국 상무부, 반도체 제조 장비사에 대중 수출 금지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0월 제시할 계획.
- 8월 말 미국 정부는 장비사 수출 규제에 앞서 이미 NVIDIA, AMD를 대상 중국과 러시아향 AI 칩 수출 금지 조치로 대중 견제를 본격화.
- 대중 규제 장기화 전망으로 자율주행, IoT 부문과 같은 군사적 목적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부문의 비중이 높은 미국 반도체 기업은 매력적.

금번 대중 수출 규제 대상 NVIDIA, AMD와
주요 장비사 3사 KLA,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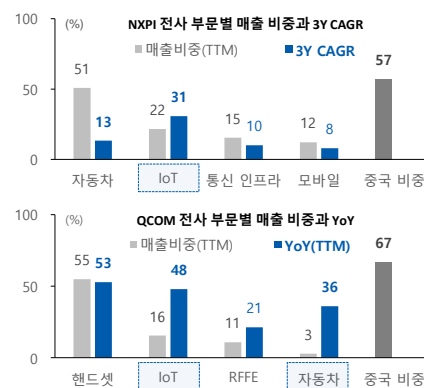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수출 규제 대상 범위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 금번 수출 규제 목적과 대상을 군사적 목적 활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제 범위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차량용 반도체 뿐만 아니라 IoT칩 분야에서 견고한 성장을 지속 중인 NXP Semiconductors(NXPI).
- 모바일 주요 시장(중국, 인도, 미국) 내 지배력과 5G 토탈 솔루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브로드컴(AVGO), 퀄컴(QCOM)에 대한 기대감 유효.

본업인 자동차와 핸드셋 부문,
신사업 IoT 부문이 전사 성장을 견인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중국 비중은 FY21년 기준

1. 안보 목적을 명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장기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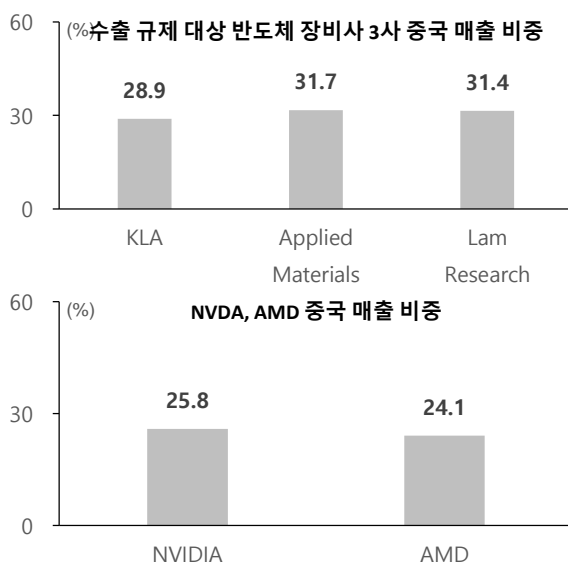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Applied Materials 외 2개 반도체 제조 장비사에 전달한 공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금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다음 달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미국 정부는 장비사 수출 규제에 앞서 이미 NVIDIA(이하 NVDA), AMD 대상 중국과 러시아향 AI 칩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며 대중 견제를 본격화했다. 당일 주가는 각각 9.3%, 6.2% 하락했으며 위탁 제조사인 TSMC 주가도 3.2% 하락했다.

금번 NVDA, AMD 수출 규제는 중국, 러시아가 미국산 고성능컴퓨팅(HPC)칩을 군사적 목적의 활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통과한 Chips Act, IRA 역시 중국 기술 굴기 견제로 궤를 같이하는 만큼 규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HPC칩 제조업체, 장비 업체 주가 모두 각각 7월과 8월 수출 금지 관련 하락을 반영해 수출 규제 관련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자율주행, IoT 부문과 같은 군사적 목적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부문 비중이 높은 미국 반도체 기업은 현 국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차트1] 금번 대중 수출 규제 대상이 된 NVIDIA, AMD와 주요 장비사 3사 KLA,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NVDA의 H100, A100, AMD의 MI250 칩이 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14nm 공정 이하 장비가 모두 해당.

구분	적용 대상	내용
Fabless 업체	NVIDIA	GPU A100, H100 (홍콩 생산 칩에 한해 내년 9월까지 규제 유예)
	AMD	MI250 (MI100 칩은 금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
반도체 장비 업체	Applied Material	14nm 공정 이하(Sub-14nm) 제품 수출 전면 금지
	KLC	
	Lam Research	

자료: 언론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수출 규제 대상 범위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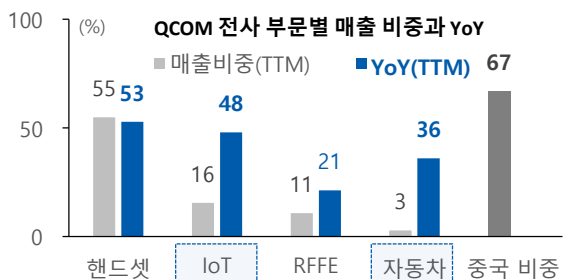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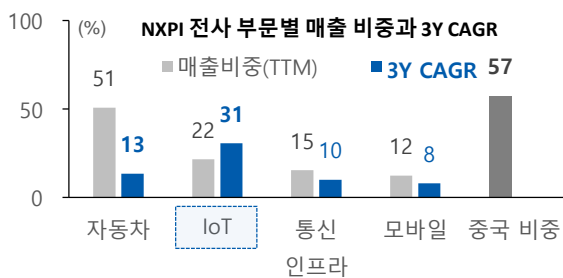
금번 수출 규제는 그 목적과 대상을 군사적 목적 활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자율주행과 같은 B2C향 부문 등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 주행 부문은 NXP Semiconductors(NXP)가 차량용 반도체 및 IoT향 칩 분야에서 견고한 성장을 지속 중이다. 중국의 견조한 수요, 공급망 차질 지속에 따른 주요 고객사(Ford, GM 등)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내년까지 견고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모바일 부문은 최근 iPhone 14의 사전 주문량이 이전 모델 주문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칩메이커 주가에도 기대감이 반영됐다. 브로드컴(AVGO), 퀄컴(QCOM)은 중국, 인도, 미국 모바일 시장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AP, 모뎀 및 RF 칩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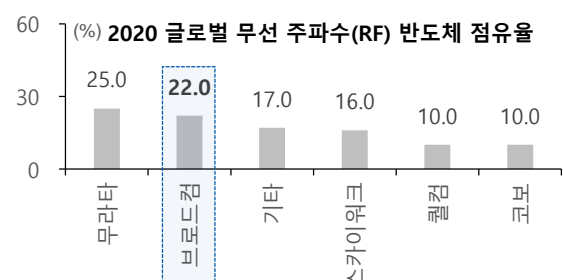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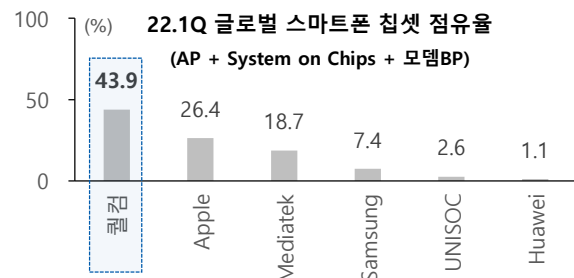
팬데믹 기간 지연된 5G 투자 확대와 서비스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 모두 네트워킹, 가상화 역량을 기반으로 5G 토탈 솔루션(자율주행, IoT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장기 성장, 다각화 측면에서 기대감이 유효하다.

[차트3] 본업인 자동차와 핸드셋 부문과 신사업 IoT 부문이 전사 성장을 견인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중국 비중은 FY21년 기준

[차트4] 무선 통신 칩셋 부문의 높은 시장 지배력, 그에 기반한 애플향 매출 비중 (20Y QCOM 20%, AVGO 15% 추정).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Khaveen Investment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